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새정치, 호남 광역단체장 내달 10일께 경선 ▶7
아시아 문화원류 태국 몽족들의 염색 ▶13
위성미 LPGA 롯데챔피언십 우승 ▶1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23호 1판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음력 3월 22일)

불법·부실·무능 … 우왕좌왕 코리아, 부끄러운 '재앙민국'

살아있어다오 제발…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오후 진도 팽목항 선착장에서 가족의 생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이 서로 부둥켜안은 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엉터리 정부에 국민 분노

세월호 침몰이 20일로 닷새째가 됐지만 남아있던 배의 선수가 완전 침몰했다는 사실 외에 사고원인 등 그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밝혀지거나 진전된 것이 없다.

우왕좌왕하는 구조상황, 오락가락하는 집계,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사고 원인 등 정부는 16일 침몰 사고 상황에서 단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무능한 대처로 세계에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겐 일말의 기대감마저 침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안전한 국가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대형 재난상황에 밑천을 드러내고 말았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해상재난사고 위기 대응 메뉴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점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번 참사는 발생부터 수습까지 정부의 엉성한 재난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를 끓게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다가 다시 안전행정부의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졌지만 부실한 초동대처와 혼선으로 일관했다.

사고 발생 후 민간 어선과 일부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세월호 침몰을 막기 위한 크레인 출동이나 공기주머니 설치 등의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다. 대대적인 잠수부 투입도 지연돼 에어 포켓내 생존자 구조를 위한 선체 진입도 늦어졌다. 이 때문에 300명 가까운 인원이 선체에 갇힌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동안 온 국민은 두 눈을 뜬 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16일 사고 당시 선박이 급속도로 침몰하고 있는데도 해경은 해상구조에만 집중, 초기 잠수부 투입은 20명에 그쳤다. 해경은 18일에야 잠수부를 500명으로 늘려 민간 잠수 방식을 시도했고, 시신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그물설치도 18일 늦은 시각에 설치했다. 효율적인 선체진입과 잠수 작업을 위한 해상 바지선 설치도 인터넷 등에서 아이디어가 제기된 뒤 19일 오전에야 이뤄졌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참사 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범정부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어 18일 박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으나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 20일 새벽에는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혼선을 빚은 승선 인원 및 실종자 명단 등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승선인원은 침몰 당일 477명이었다가 459명으로, 다시 462명으로 고쳤고 17일 다시 475명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17일 476명으로 늘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인명 피해 상황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244명	사망 58명

※ 20일 오후 8시 현재

진도 실종자 가족들 눈물 ▶2면
총체적 부실이 부른 대참사 ▶3면
수색·구조 21~25일 총력전 ▶4면
전남 연안 여객선 노후 ▶5면
지방선거 분위기 '침몰' ▶6면
전남·북 축제 취소·연기 ▶10·11면
연예인 공연 취소 잇따라 ▶16면

선장, 승객에 퇴선명령 안내리고 탈출

진도 VTS 녹취록 공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VTS)가 해경의 연락을 받고 지난 16일 오전 9시 6분부터 세월호와 시작한 교신 녹취록이 20일 공개됐다. 교신은 모두 31분간 이뤄졌다. 첫 교신 때부터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VTS 지시와 달리,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배 상태, 승객 탈출 가능 및 구조 여부 등을 묻는 긴박한 상황이 담겼다.

교신은 지난 16일 오전 9시 6분 진도 VTS의 3차례 호출 이후 시작됐다. 오전 8시 55분 세월호가 제주VTS에 신고한 지 약 11분이 지난 뒤다. 우선, VTS는 승객 탈출 가능 여부를 물었고 배가 기울어 불가능하다는 답신이 왔다.

VTS의 '승객 탈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하지만 세월호는 '구조가 가능한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교신이 이어지다 9시 14분께 주변 선박에서 세월호에서 처음으로 탈출한 보트가 목격됐다. VTS는 방송을 이용한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세월호 측에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배가 60도 정도 기울여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세월호는 응답하지 않았다.

9시 37분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이때부터 이선(탈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 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지만 교신이 이뤄지는 31분간 선장 이준석(69)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0일 세월호 참사 수습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